



함께라면 좋겠네

해당화

소개글

더불어사는 공동체사회를 다시 꿈꾸어 봅니다.

남북 겨레가 하나되고, 국민이 제 권리를 누리는 민주주의가 꽃피고,
차별이 없이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변화해야 할 시대에 시가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목차

1	너를 위한 삶의 길을 부르며	5
2	우수블로그, 날개를 단 듯	7
3	한너울이 파도치는 해넘이에	9
4	왜 다시 인문학인가	11
5	해고를 멈춰라 함께 살자	13
6	새날이 밝아오는 길 위에 서서	15
7	따뜻한 희망의 샛별로 살아	17
8	장애인평생학교를 외면마라	19
9	겨울산으로 떠나고 싶다	21
10	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23
11	전자주민증, 꿈수 아닐까요	25
12	왜 현장 탄압을 합니까?	27
13	고향을 오래 떠나 살며	29
14	한술밥이 그리운 겨울밤에	31
15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33
16	쫓겨나는 사람들 여기도 있다	35
17	밀사리 그 시절이 그림다	37
18	어시장 설 대목장만 같아라	39
19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41
20	푸른학교가 지킨 희망의 길	43
21	길 위에서 겨울나무를 만나	45
22	농성천막에서 참교육을 새기며	47
23	고향 못 가고 농성장 지켜요	49
24	그리운 설 명절 풍경 앞에서	51
25	밀양, 비극은 끝나야 한다	53

26	임항선 기차길 어떻게 할까	56
27	인문학이 더불어삶을 찾다	58
28	2012년 겨울 시인일기	60
29	산은 날더러 벗이 되자 하네	63
30	정말 심각한 상황이 왔구나	65
31	옥탑방에도 눈꽃은 피건만	67
32	TV 사극에 항일은 왜 없나?	69
33	고양이를 부탁해 잘 살 거야	71
34	빛 속에서 대보름을 맞으며	73
35	없는 희망을 쓴 쪽방일기	75
36	지리산에 눈꽃은 피었건만	77
37	마산에 내리는 첫눈	79
38	당신의 환한 미소가 그림다	81
39	끝내 살아 새봄은 온다	83
40	초승달이 슬퍼 보이는 이유	85
41	무소유가 생각난 어느날	87
42	마산에 눈보라 치던 날	89
43	세상을 바꿔야 내가 산다	91
44	우린 왜 다시 촛불을 들었나	93
45	여항산에 깃들인 내 마음	95
46	꿈에 본 내 고향을 못 잊어	97
47	빼앗긴 들에도 봄은 왔건만	99
48	꽃처럼 사람이 소중한 이유	101
49	블로그북 <함께라면 좋겠네> 시집 후기^^	103



너를 위한 삶의 길을 부르며

성탄전야에 내 가는 곳
저 십자가 별빛은
누리를 비추는
차별없는 사랑인가
낮은 곳으로 임한
아기 예수의 구유에
경배드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문순규 시의원도
만나 악수를 나눴네
양덕성당을 나오며
오늘 종교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바람부는 거리에서
다시 새겨 보는가
오늘따라 무척
그리워지는
평등한 세상이어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힘이 동방의 별처럼
외양간 구유에서
빛을 뿜는 겨울밤
세상을 바꾸는 길은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하는
성탄전야는 빛나라

2011
우수블로그를 소개합니다.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2011 우수블로그를 소개합니다.



우수블로그, 날개를 단 듯

우수블로그에 선정되니
명함에다 기념품에다
선물보따리도 받고
엠블럼도 달아주구나

문화사회 창작예술란에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블로그로

해당화는 꾸준히 시와
우리 지역 행사를
취재해서 올렸던 게
좋은 콘텐츠였다네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할

블로거로 쳐 주는
다음이 나로선 반갑고
발걸음은 가벼워져라



한녀울이 파도치는 해넘이에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가
한녀울 회원들이
먼 답사길을 뒤돌아보며
추억과 함께 펼쳐는
송년의 밤 한마당이며

"우리 문화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며

손 맞잡은 사람들
경남에서 서울 경기까지
발자취 남긴 나날이여

우리가 보고 느낀 만큼
깨닫게 된다는
문화유산 답사길은
산 교육의 여행이었거늘
어찌 값지지 않으랴

사진 한 장도 소중하구나
먼 훗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꺼내볼
그리운 풍경들이여
첫사랑처럼 잊지 못하리

오늘 이렇게 어울려서
술잔을 부딪치고
노래부르는 송년의 밤은
내일의 희망일지니
한너울을 아껴주리라



왜 다시 인문학인가

절실했던가 묻자
인문학 시민강좌에서
오늘 사회적 기업
어제 행복
주제로 열렸던
당대 화두들
자신에게
목말라 하였던가 묻자

교수 시민 돈 모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그 시간
매월 한 차례
어김없이
자리를 채운 사람들
뭘 얻고 가는지
나는 뭘
깨우쳤는가 묻자
간절한 마음
한 줄기 빛을 찾는
삶의 희망만이
인문학을
만나게 되는 것
8회째 강좌
새 걸 얻었다



해고를 멈춰라 함께 살자

창원의 겨울 더 춥다
롯데백화점에서
10년 동안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 35명
해고 통보를 받았다
시장도 사장도
다 한통속이라지
지하 5층 그곳에서

시설관리를 도맡아 한
그들이 무슨 죄냐
하청업체 횡포 속에
재계약 고용불안
서러움도 참고
생업을 이어 왔으련만
년간 영업이익 1조원
롯데의 꿈수는
저임금마저 아까워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말인가
해고는 살인! 외침이
전국을 울렸던
한진 쌍용 노동자들
기억이 생생한데
악랄한 자본은
생존권을 짓밟았다
99% 서민들이 고객인
롯데백화점이며
노동의 도시 창원을
우롱하지 말라
부당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철폐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새날이 밝아오는 길 위에 서서

불종거리에서 새해를 맞다
마산은 가슴 속에 살아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한
이 길 위에서 다함께
노래와 더불어 즐거움게
흑룡해의 소망을 빈다
타종소리는 오래오래
뭇 생명을 일깨우며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간절히 부르고 있지 않나
눈빛으로 불꽃처럼
타오르는 보통시민들의
마음에 깃들인 염원이여
더 큰 하나로 뭉쳐서
내일을 열어갈 새날을
그리움으로 불러보는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함성 올리며 노래한
송구영신의 다짐이여
못 살고 잘 살고가 없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길 위에 섰다



따뜻한 희망의 색별로 살아

유신독재의 고문조차
그를 꺾지 못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는 보복보다
용서를 베풀었다

저 고문기술자 이근안
천추에 한이 된
악귀같은 놈 때문에
김근태 선생이

일찍 가실 줄이야

해맑은 그의 영전 앞에
엎드려 절올리는
사람들의 통한이여
오롯이 민주화에 바친
그의 한생을 기려라

새해맞이 해돋이처럼
내 가슴에 타오른
그를 추모하며
시대의 벗 김근태를
목놓아 외쳐부른다



장애인평생학교를 외면마라

거리를 걷다가 마주친
장애인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생학교 예산 삭감이
부당한 처사란 걸
휠체어에 탄 채
피켓으로 알려내는

장애학생의 홍보전은
내 가슴을 찼다
늘려도 뭐할 판에

도의회가 2/3나 꺾나
모욕도 서슴참고
최저임금도 안되게
교사 대우를 쪼쪼

검정고시를 통해 꿈을
키우는 장애인들
맺힌 한을 누가 알랴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호소한
장애인평생학교여
부끄럽고 참 미안타

경남도내 중증장애인
초졸 이하 7만여명
모두 우리 책임이다



겨울산으로 떠나고 싶다

겨울 잠바하고 바지는
차모임 회장한테
얻어 입었더니 낫다
빵모자는 귀를
가릴 참으로 사고
망설였던 내복도
내친 김에 사 입었다
흔들림을 방지하는
카메라 뿔뿔도
우연찮게 구했다
이제 겨울산으로 갈
준비가 된 것 같다
흰눈 쌓이고
칼바람 몰아치는
1천미터 산으로

떠나도 좋을 듯해
내 마음은 가뿐하다
아이젠도 있고
스틱도 챙겼으니
송년산행때 못 가 본
비슬산뿐만 아니라
지리산도 타겠다
신발은 손 좀 보면
발 얼지는 않겠고
배낭이야 튼실하고
모자하고 양말은
고교 동창회 갔다가
경품으로 받았으니
이만하면 살겠다



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효자 노릇하던 송아지가
삼겹살 1인분값이라?
소 키우는 농가는
빚더미에 어찌 살라고

결국 올 게 온 셈이려니
호주산 미국산 천지
덩달아 미친 소 수입까지
마구 밀어붙이더니
한우마저 위태롭구나

한미FTA가 물고온 재앙
갓 시작에 불과하지
사육량이 많아 그런 게
결코 아니고 말고

군납으로 과연 해결될까
살농의 축산정책이
어제 오늘의 일이던가
수입산이 판치는
세상을 바꾸지 않는 한

축산농가 무너지는 소리
언제나 끝날지 몰라
스테이크 즐길 그 시간
한국소 피울음 울어라



전자주민증, 꿈수 아닐까요

조지 오웰의 1984 소설을
허투루 볼 게 아니다
통제사회가 싫어도
길들여져 있지 않는가
모 회사 출입할 때
출근카드 찍어야 되고
신분증 제시할 때
전자주민증 체크하면
개인 신상이 죄다
속속들이 드러나지
선관위 흠피조차
디도스 사태에서 보듯
해킹당하는 시대에

또 다시 모든 정보를
집어넣어 통합시킨다는
전자주민증이 괴물
아니고 그 무엇이랴
너무 무감각해진
우리 자신들의 인권을
빼앗으려 드는
권력에 저항치 않고
어찌 자유라 하랴
바코드포 검색봉으로
시위대 현장을 죽
히려 지나가기만 하면
전자주민증 신분
드러나 출석요구서가
날아드는 세상에
이미 살고 있거늘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인
새 전자주민증은 또
뭇뻘에 나온다던가
1984 소설이 던져 준
진실을 곱씹어야
할 때가 왔지 않나



왜 현장 탄압을 합니까?

울산 현대자동차지부

노동자 한 분이

현장통제에 항거해

분신을 하였단다

노동조합을 옥죄는

악랄한 자본이

사람 목숨 파리 보듯

업신여기는 이 땅

87년 노동자대투쟁

그날에 외쳤던
인간답게 살고 싶다!
외침이 타올라라

얼마나 괴로웠으랴
새해 희망 대신
또 다시 슬픈
소식을 접하다니

사측의 극심한 도발은
사사건건 마찰은
오늘의 사태를
부르고야 말았거늘

신승훈 조합원동지는
오랜 탄압에 맞서
한 점 불꽃으로
투쟁을 외쳤구나



고향을 오래 떠나 살며

달빛에 내 마음을
실어 보내며
그리운 이름을
하나 둘씩
불러보는 겨울밤
다들 몸 성히
잘 지내는지
아프게 돌아보아라
잃어버린 고향

흩어져 살아가는
일가 친척들
못 본 지 꽤 됐네
요지경 세파 속에서
집안인들 어찌
온전히 보전하랴
좋은 날이 오면
곧 만나리니
호젓한 내 마음을
달빛에 띄우네



한솔밥이 그리운 겨울밤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오랫만에 차려놓고
묵직한 몸을 풀어라

산악회 회의 갔다가
추어탕에 소주를
함께 나눠 먹으며

쌀 한톨 찬거리 하나
농민의 땀방울이
스민 줄 내 알았네

일식삼찬도 건너뛰기
일쑤인 시인에게
너무 고마운 밥상

다시 한파가 닥친 날
겨울산을 오르며
살아봐야겠다 싶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9시 TV 뉴스를 보다가
통합진보당 소식은
한 줄도 나오지 않길래
알려내야 한다는
심정이 울컥 솟더라
MB독재를 연장하려는
조중동 종편 특혜
방송장악 술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보겠다?
그렇다면 SNS를
인터넷언론을
또 거리홍보전을
적극 활용해야 돼
2012 권력교체 시기
99%의 국민들
노동자 서민과 함께
보랏빛으로 물결치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끌어안아야 해
더 큰 하나로 뭉쳐
출범한 통합진보당이
다시 희망이라면
나부터 실천해야 돼



꽃겨나는 사람들 여기도 있다

나는 저 사진을 보면
제비산 꼬방동네
무등산타잔
생각이 절로 난다
허름한 판자집
슬레트집에서 부대깁
삶들에 얹힌
눈물 맺힌 사연들이
애달피 떠오른다
도시재생을 할라치면
철거만이 능사던가
고운 벽화만 남고

떠나간 사람들
보상금으로 더 싸게
살 곳을 찾아
변두리로 갔겠지
서울 동작구 상도4동
산65번지 그곳에
고층아파트 들어서
비싼 집값 치루는
재개발이 싫다
옛 동네를 보존해
공동체로 가꾼다면
한결 나으련만
아쉬운 마음이 인다
세월의 흔적조차
채 남기지 못하는
우리 서민들
그 언제 다시 오면
가슴은 쓰라려
추억일랑 씹겠지
집없는 설움에
떠돌아 다녀야 하는
날이 사라지고
더불어 웃고 사는
참세상이 그림다



밀사리 그 시절이 그림다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
제과점에 들어서
비상식량으로
도너츠 2개를 샀다
원산지 표시에서
밀가루는 미국산이고
팥도 국산이 아니다
우리밀은 요즘
파종 면적이 조금

늘었지만 힘들다지
빈 속에 도너츠를
먹고 났더니
신물이 오르고서야
앗차 싶더라고
아이들도 과자 피자
치킨 먹고 나서
아토피에 걸렸다는데
우리 먹거리에
그동안 무심했구나
반성하게 되었다
무심코 집어든
패스트푸드 하나도
온통 수입산이라
알면서도 사 먹는
내 신세가 한심하였다



어시장 설 대목장만 같아라

휴일 낮 마산 어시장은
설 대목장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정성껏 차례상에 올릴
생선 과일 한과 등
제수용품을 사느라
모처럼 활기가 돈다

5일장이 돌아온 것처럼
재래시장이 활짝
웃는 모습을 그렸다

요즘 시장도 양극화돼
영세상인 한숨일랑
깊어간다고 그러지만
이곳은 손님이 많다

국화빵 노점도 바쁘고
온갖 장사가 붐비니
쇼핑하기에 맞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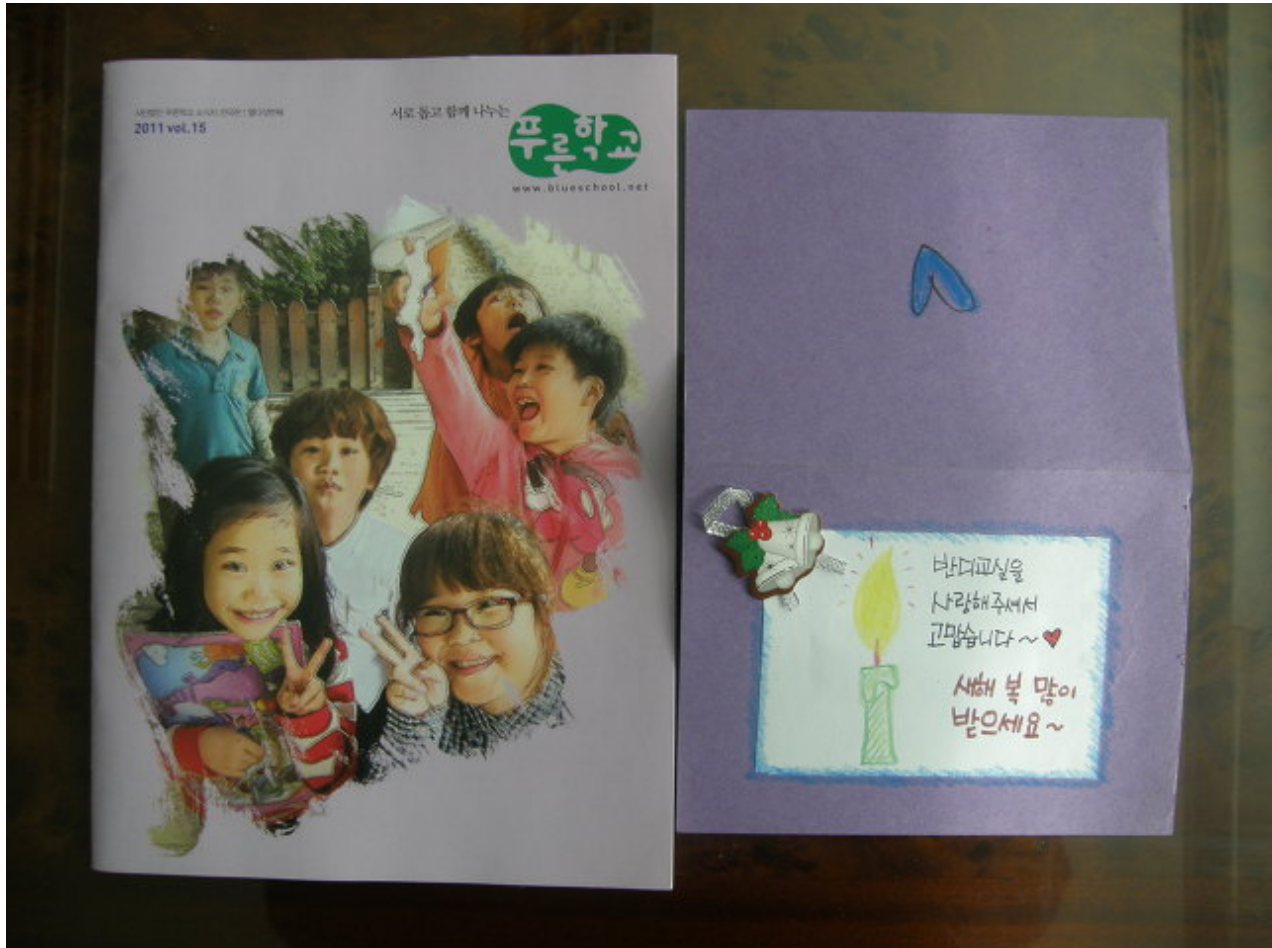
하긴 없이 사는 이들의
심정이야 오죽하랴
물가도 뛰었다 그러고
설 명절은 함께 쇠자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새벽달은 흐리고
또 하루가
시한폭탄처럼
짜깁거린다
이 땅 사람들은
자살로 분신으로
안타까이
숨저가건만
눈물은
쉬 마르고
생활에 쫓긴다
함께 살자던
간절한 외침들
오늘 내일도
끊이지 않으련만
고개돌리는
무심한 이들
제 한몸

챙기기에 바쁜
야만의 세월
1% 부자
99% 서민들
양극화는 깊어
점령하라!
거리로 뛰쳐 나온
수천수만
촛불이 탄다
텅 빈
내 가슴을
희망의 노래들로
채우며 탄다
꼭 찾아올
새날을 부르며



푸른학교가 지킨 희망의 길

반디교실 아동센터에서
이쁜 소식지가 왔다
윤지란 아이가 곱게 쓴
새해카드를 동봉한 채

제비꽃 시인이 부쳐 준
열다섯번째가 되는
"푸른학교" 이야기가

따뜻한 밥이고 사랑이다

서울 경기 충남 충북 등
알콩달콩한 공부랑
놀이랑 생활이랑
정성들여 담아 놓았다

살아있는 그림그리기
볼수록 기특하고
신발에게 쓰는 편지도
참 재미있게 읽었다

실업,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이 한데 모여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공부방은 공동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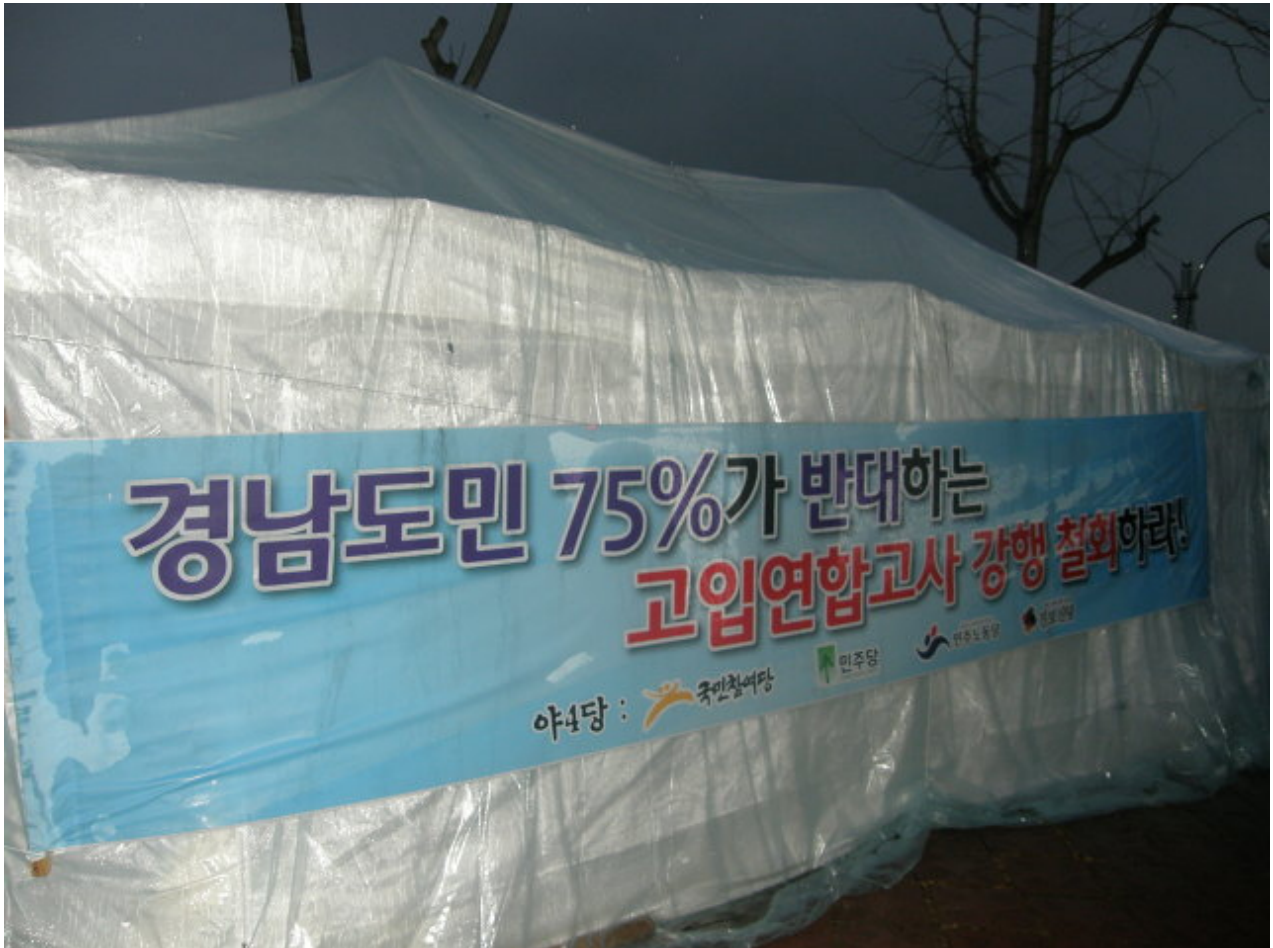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
선생님을 놀래키는
반디교실 아이들에게
함께 손을 잡아주자



길 위에서 겨울나무를 만나

겨울나무에 눈길 머문다
잎들 다 떨어버리고
새봄을 기다리는 마음
용지못가에 서서
비바람 맞고 있는
그 모습이 남갈지 않아
살며시 말 건네보며
어린왕자처럼 묻는다

"넌 어디서 왔니?"
지구별의 생명 나무들
아득한 태고적부터
사람과 관계를 맺은
떨 수 없는 이웃들
스산한 겨울을 버티는
서민들의 살림처럼
헐벗은 풍경을 보니
꼭 내 마음 같다
길을 건다가 마주쳐도
제대로 인사 한번
나눈 적 없는 겨울나무
빛 속을 걸으며
오늘따라 친구 된다



농성천막에서 참교육을 새기며

고입 연합고사가 부활된다?

지금도 시험공부때문에

초등 중등 고등부까지

학원 다니라 초주검인데

또 얼마나 더 오래도록

교과서 참고서를 붙잡고

매달려야 쓴단 말인가

출석부를 들고 오고가는
선생님들도 죽을 맛
학부모들도 무거운 짐
더 얹게 돼 버렸구나

행복이란 성적순인가?
아닌가? 다시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할까

설문조사조차 거부한 채
도민 75%가 반대해도
오로지 무한경쟁을
밀어붙이는 경남교육감

지금 학교폭력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된 것도
입시지옥 교육탓이려만

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줄지 않는 슬픈 오늘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참교육이 너무 간절해

도교육청 앞 천막농성장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도 보태고 싶다



고향 못 가고 농성장 지켜요

까치설날 마음은 무겁다
귀향 못한 사람들이
눈에 밟혀 아프다
쌍용 대림 롯데 동지들
해고자들의 마음처럼

희망버스에 몸을 싣고
함께 살자! 촛불을

가슴 가슴마다 컸던
아름다운 연대
분노의 외침이 울린다

꼭 찾아가리라 노래하는
비정규직 철폐가
흑한의 거리를 달구는
새해 벽두의 풍경들
창원도 잠 못 이룬다

울산 밀양에서 날라온
열사의 분신 속보
처절하게 온몸으로
타오른 삶들이
참된 세상을 부른다

롯데백화점 앞 촛불을
들고 탑돌이하며
해고철회! 롯데불매!
힘모아 외친 그날
노동자는 하나였다

정녕 해고는 살인이다
누구도 예외가 아닌
시대의 슬로건을
내 가슴에 품고
까치설날을 맞는다



그리운 설 명절 풍경 앞에서

평등명절 어디쯤 왔나
함께 전 부치고
따뜻한 인사 나누는
차별없는 가정은
멀리 있지 않으리
캠페인 펼치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사진으로 만났네

검단산 산길을
노래부르며 걷던
블로그 이웃
"아름다운 희망"이란
음반을 냈다지
길은 멀어 성남까지
못 갔어도 마음은
축하를 보냈어라
유튜브에 올린
사람세상의 노래들
들었던 기억도 나
총선 예비후보로
수정구 주민들
손을 꼭 잡으며
서민의 희망이고자
말 건네던 모습도
잊히지가 않고
페이스북 친구가
5천명이 넘었다지
내 11번째 시집
"바람부는 저 길이
우릴 부른다"
서평을 써서 보내준
푸른바다님에게
새해 안부 전하네



밀양, 비극은 끝나야 한다

수백년 이어져 온 마을
밀양 보라마을에
송전철탑을 짓고부터
한전과 목숨을 건
반대투쟁을 해 온 지
무려 7년이 되었다
처절하게 싸운
나이든 어른들
마을주민들 절규는
피멍이 들어도
신문 한 줄 나오지
않더니 급기야

주민 이치우 열사가
분신한 그날 이후
전국으로 타전됐다
환경단체들도
들고 나선 오늘
신고리 원전이 부른
참상 앞에서
분노가 솟구친다
산을 빙 두르고
들어설 송전철탑은
누굴 위한 것이라
원전사고를 외면하는
지경부도 한전도
반성은 커녕
용역강패를 동원해
폭력을 휘둘렀다
비구니스님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발언도 나왔다
막돼먹은 MB정부가
저지른 만행이다
밀양, 비극은
막을 내려야 한다



임항선 기찻길 어떻게 할까

마산 임항선 그린웨이
폐선로를 어떻게
푸른 길로 가꿀 건지
머리맞댄 토론회는
도시재생이었네
역사의 자취 문화
고스란히 담긴
우리 고장의 숨결이

기차길에 스몄거늘
조례 제정도 안돼
주민참여도 없지
민관협 통로도
막혀 버린 창원시
시민단체 제안조차
못 받아 들인 채
혈세를 들이는
임항선 기차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광주 사례를 듣고
건축사 사학과교수
녹색창원 발표를
경청해 보니까
더 늦기 전에
바꿀 필요가 있데
마산을 좋은 도시로
만들자면 그래
YMCA가 쏟은
땀방울은 값졌어라



인문학이 더불어삶을 찾다

지금은 누구나 복지를
이야기한다지만
행복한 인문학 교실
9번째 보편주의 사회복지
감정기교수 강연은
시사만평 영상 한컷마다
학자로서 진정성이
알알이 뻗었더라

"왜?" "어떻게?"
의문을 던져라 말하며
함께 사는 길을
시민들과 찾아나섰네
나라 말아먹는 것도
인기영합도 아닌
고사성어 오월동주
한 배의 운명처럼
한국사회 1%에 맞선
99%의 저항은
간절히 다가왔고
우리시대의 화두였네
평등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물으며
내가 처한 오늘을
곰곰이 돌아보았으니
설날 지내고 열린
인문학 첫 강좌
더불어삶이 소중한 줄
다시 깨우쳤어라



오랫만에 더운 물로
내 몸을 씻으니
한결 가벼워졌다
잠바 바지까지
벼르다가 세탁하며
겨우내 바빠
돌아치던 일상을
잠시 내려 났다
밀려오던 긴 피로감도
덜해서 살 것 같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 자신에게
속으로 다짐하는
아직 추운 날들
봄날이 오면
묵은 집을 버리고
새 길을 찾아서
떠나가야겠다
한 편의 시로
희망을 노래하며
삶을 일궈야지
시인은 죽지 않는다



산은 날더러 벗이 되자 하네

무학산 시산제 올리려
함께 떠난 산행길
바람 맴짖 겨울산에
학봉은 의연하구나

헐벗어도 꽃눈은 살아
새봄을 기약하듯
버터 선 겨울나무

마치 내 마음 같아라

작은 섬들이 떠 있는
마산만은 변함없이
길손을 반기건만
그간 무심히 지냈네

산 정상을 바라보며
엮드려 절을리는
무학산악회 회원들
힘 모은 기원이여

관해정에서 학봉으로
오르는 코스에서
내가 만났던 풍경들
못 잊을 사랑이라

낮익은 추억의 산길에
숨결처럼 타올라
그리움으로 돌아보는
그 시절이 애달구나



정말 심각한 상황이 왔구나

흑룡의 해 새해 들어서
줄줄이 분노뿐이야
공공물가는 오르지
3월 위기설도
불거져 나오지
노동자도 청소년도
마을주민도
목숨을 끊는 세상
최악의 대통령 MB는
중소상인들마저
피눈물 솟게 하지
총선 대선을 앞두고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막 밀어붙였다가
굴욕을 참지 못한

MBC 노동조합
사장퇴진 공정방송을
내걸고 총파업에
떨쳐 나섰는지
곳곳에서 터져나온
99%의 저항!
더 물러설 곳 없이
배수진을 치고
세상을 바꿔야지



옥탑방에도 눈꽃은 피건만

내일 모레가 입춘인데
올 겨울 마산은
눈 구경하기 힘드네
서울은 영하 17도
55년만의 한파에
함박눈이 내렸는지
밤새 내린 눈은
옥탑방에도 쌓여

잠 못 이루는
춡고 배고픈 이들
쓰라린 가슴을
얼어붙게 하는가
눈꽃을 피운 나무야
참 아름답건만
부대끼는 세상은
왜 이리도 추한지
꽂꽂 언 겨울공화국을
녹일 자 누구랴
강추위 속에 버티며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 많으리



TV 사극에 항일은 왜 없나?

요즘은 중국영화를 본다
항일전쟁 영화이다
중국원정군 유격대 등

한때는 소설에 폭 빠져
백범 김구 장준하
책들을 즐겨 봤지만

MB정권 들어 드라마에서
속 빠져 버린 테마가
독립운동 투쟁사이다

과거사 중 잊어선 안될
강도 일제의 만행을
단죄하는 전투장면들

오늘처럼 생생히 다가와
내 나라를 지키듯
가슴을 격동케 만든다

미국과 견주는 중국대륙
삼국지 수호지만큼
항일영화가 소중하다



고양이를 부탁해 잘 살 거야

이별연습이 쉽지가 않네
쫓았다가 들이기를
몇 차례나 반복할꺼나

정든 야옹이들을 떼고
떠나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작은 생명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지

같이 지내면 심장병에
좋다고도 하건만
내 갈 길과 달라서

차츰 헤어지는 연습을
해 봐야 할까부다
검은고양이 식구와

애초 길냥이였던 녀석
어미가 죽고 태어나
새끼들을 거느렸거늘

먹이통 놓아줄 이웃이
귀한 야박한 동네
길에서 다시 만나자



빛 속에서 대보름을 맞으며

보름달은 빛 속에 가려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가슴에 떠올랐어라
간절히 빌고 싶은
소원 한 가지 무어라
추산공원에 서서
저 바닷가 너머
환히 빛날 달님에게

"조국통일!" 외쳤구나
함께 달맞이하던
벗들과 합장한
우리 거래의 비원이여
초등학교 적부터
노래한 우리의 소원
이루어질 그날이
무척 사무치는 대보름
달집을 못 태워도
활활 타오를 염원은
꽃처럼 피어나리니
빛 속을 거닐며
"통일은 됐어!"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그림네



없는 희망을 쓴 쪽방일기

새벽 4시에 잠이 깨다
달빛은 눈부시도록
이 땅을 밝히는데
내 발걸음은 무겁다
연합뉴스에 실린
쪽방일기가 떠올라서
우리시대의 아픔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을
돌아보는 겨울날
꿈도 이웃조차 없이
몸누인 사람들에게
차마 할 말이 없다
한순간 노숙자로
떠돌 수 있고
감옥에도 갇히는
슬픈 얼굴들이
눈 앞에 어른거린다
오늘 또 누군가

두눈 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갈지
내 마음은 쓰리다
겨울쪽방에도
서울의 달은 빛난다



지리산에 눈꽃은 피었건만

눈 덮인 지리산 둘레길
호젓이 걷고 싶은데
밤새 어깨통증에 시달려
무거운 배낭이랑
컴퓨터랑 원망스럽네
꿈 속은 어수선했
툭툭 떨어내고 싶은
고단한 겨울날
블로거 시인에게는
낮과 밤이 없구나

세상을 바꾸는 무기로
시를 움켜 쥐고
전사들처럼 싸울 뿐
삶과 투쟁이
나의 슬로건이지
김남주 시인의
문학혼이 그리워지는
이 산하의 지리산으로
흰눈 즈려 밟으며
내 다시 떠나가리라



마산에 내리는 첫눈

이른 아침 쌀처럼
새하얀 알갱이
눈이 내리는 길
마산역에서
양덕을 한바퀴 돌아
수출공단까지
걸으니 함박눈이
막 쏟아지구나

팔용산도 희부영계
눈발에 가린
첫눈 풍경을 보니
내 마음 포근타
얼마만이더냐
만나고 싶던
그리운 얼굴인 양
품 속에 안겨라
오늘 또 하나
돌탑을 쌓으며
염원일랑 새기듯
고향 마산에
첫눈이 내리네



당신의 환한 미소가 그림다

그래, 너무 잊고 지냈어
국가보안법 양심수
어느새 까마득해졌어
평화보다 전쟁을
기어코 저지르고야
말겠다 환장한
불나방들의 탄압 속에도
제주 강정마을은
자주민보 언론인은
"해군기지 반대!"
"전쟁 반대!"를 외치며

온몸으로 펜으로
투쟁하고 있었거늘
포승줄 묶인 채
끌려가는 광경 앞에서
우리는 방관자였지
희망비행기 희망텐트
소금꽃나무처럼
달려가야 했거늘
하루의 생활에
급급하지 않았던가
예비검속을 저지르는
저들의 발악에도
생명 평화의 물결은
민중의 바다로
흘러 흘러 가련만
〈25시〉를 몸부림치며
노래할 시인마저
잠들었어야 했는가
진정 전쟁보다
평화를 위한다면
멀쳐 나서야 할 때네



끝내 살아 새봄은 온다

바람 속에 햇볕 속에
새봄의 숨결이
내 얼굴에 와 닿네
춤던 겨울도
조금만 버티면 돼
눈이 녹고
계곡물이 흐르는
풍경을 보리니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서성거렸던 이들
눈에 선한
고통의 세월도
사라졌으면 좋겠지
생의 봄날은
99%의 가슴에도
찾아와야겠지

저마다
희망 촛불을 켜고
노래부르는
그날이여 오라



초승달이 슬퍼 보이는 이유

새벽에 돌아오며
만난 초승달은
왠지 슬프다
허물어지기 직전인
빈 집들엔
어느 누가 살다가
떠나갔길래
나무랑 텃밭이랑

딩그러니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가
굳게 닫힌 문
밤고양이만
살금살금 찾아들까
오랜 동네사람들
재개발땀에
정든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갔나
지구별에서
방 한 칸도 없이
떠도는 이웃들
살 수 있으면
오죽 좋겠나마는
공동체는 깨어지고
뿔뿔이 흩어져
제 잇속만
챙기는 세태가
서글퍼진다



무소유가 생각난 어느날

버려도 끝이 없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둘씩 쌓인 것들
막상 떠날 때 보니
옷가지도 책도
짐이 되어 버렸네
법정스님의 무소유
딱 들어맞았구나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작지만 버려서
아나바다로

나눌 수 있다면
아꼈던 국어사전도
내어 놓아야겠지
하지만 시집은
끝내 안고 간다
홀가분하게
해묵은 짐들을 털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길이
나는야 좋더라



마산에 눈보라 치던 날

눈이 내리면 걷는다
마산의 거리에
몰아치는 눈보라

가슴에 사무쳤던
아우성처럼
쏟아지는 흰눈

꼭 다시 피어 오를
민주성지의
봉화를 보는 듯

한순간 설레였던
내 마음을
너만은 알리라

빈 손으로 살지라도
깊이 간직한
그리움은 탄다



세상을 바꿔야 내가 산다

피같은 하루가 흐른다
줄담배를 피우고
소주를 늘상 마시며
부대끼는 삶에
봄날은 언제쯤일까
젖은 기침을 하다
퇴근길 거리에서
나의 눈에 띄

플랑카드 한 장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외침이 절절히
가슴엘랑 와 닿네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더불어 살아갈
그 세상이 그리워
한순간 멈춰섰구나
저 보랏빛 물결
민중의 바다에
깃든 오랜 염원이
되살아오듯
곰곰히 새겨보는
슬로건이었거니
노동자 서민의
참된 벗이란
통합진보당 약속은
빈 말이 아니네
바람부는 길에서
마주친 구호는
못 잊을 사랑이다



우린 왜 다시 촛불을 들었다

적들의 문전에 서서
우린 쫓지 않는다
방패도 창살도
무너뜨릴 힘이란
오직 하나
피 흘려 얻은 교훈인
단결 투쟁이다
경제주권을 빼앗는
한미FTA 발효에
부패 비리로 짝 찬
MB독재 발악에
우린 맞서 싸운다
서울에서 부산경남

제주도까지도
분노의 거리마다
"한미FTA 폐기!"
"부패정치세력 청산!"
레드카드를 들고
MB 4년 폭정을
심판하고 말겠다는
결의를 태운다
노동자도 농민도
시민도 떨쳐 나선
창원 롯데백화점 앞
"부당해고 철회!"
"민주주의 수호!"
외침이 울려퍼진다
우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헌법 제1조를
아침이슬을
빠이빠이 비정규직을
다함께 노래하며
전진할 뿐이다
꼭 이긴다는
신념 하나로 뭉쳐
오늘도 나선다
2012 총선 대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이
승리할 것을
우린 명령한다



여항산에 깃들인 내 마음

막바지 겨울산이 좋다
함안 여항산으로
여럿이 함께 오르니

갈색잎들 수북히 깔린
흙길이 포근하게
내 발을 어루만져라

아직 봄은 오지 않았다
겨울나무 숲들엔
새 잎이 필락말락해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평화와 통일처럼
간절해지던 전장터

멧새소리 고즈넉하다
너덜바윗길 지나
돌을샘 물 맛봤구나

산봉우리에서 바라본
너른 들이 소중타
저 멀리 지리산처럼

사람사는 풍경도 보며
겨울산 품 속에서
나는 새힘을 얻었네



꿈에 본 내 고향을 못 잊어

까치집에 눈길이 간다
마산역 나무 위에
옥탑방보다 더 높이
지어 올린 둥지
비바람 눈보라도
다 버터내고
이제 새봄을 맞이할
채비를 하겠거니

셋방살이 걱정없이
자유로운 새들
그 집 아래 주말이면
노숙인들 밥 먹고
거리를 떠돌지
까치집 보느라면
아스라이 떠오르는
고향집 풍경처럼
내 가슴을 치네
새벽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소식이
날아든다고 하건만
사람세상에는 언제쯤
기쁜 날이 올까
바닷가 고향 찾아
휘이휘이 날아가
깃들고 싶은 마음에
오늘따라 웬지
옛 시절이 그립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왔건만

3.1절 마음이 무겁다
사죄없는 일제와
기어이 한민족 씨를
말리려는 미국에게
평화와 통일을
어찌 내말길 수 있으랴
내 사랑 한반도를
부강한 강산으로 일굴
우리 겨레의 꿈을
그 누가 짓밟았던가

오늘도 미7함대가
동해바다 어디쯤에
전쟁의 불씨를
지피려 덤비는데
정작 한국 국민들은
강 건너 불 보듯
심각한 줄 모른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는
제2의 을사늑약인
한미FTA 발효에
의병이라도 일으켜야
분통이 풀리련만
3.1절 기념식장에서
애국ियो 조국ियो
말만 요란할 뿐
휘날리는 저 태극기에
스민 선열의 혼을
불러내야 할 때이다



꽃처럼 사람이 소중한 이유

저 새벽별이 지기 전에
꽃에게 말을 걸고
포기하지 못할 희망을
전해주어야 하리니

사람끼리 관계를 맺고
어울려 살아가면서
1%와 99%의 삶이

그리 다르단 말인가

저항보다 체념을 택한
이들의 가슴팍에도
4월 그날이 오면
세상을 바꾸자 하리

쉽사리 잠 못 이루고
시를 써 내려가며
불가능한 꿈을 꾸자고
체 게바라가 말했지

보랏빛 당이 물결치는
서민행복 시대를
함께 봤으면 좋겠네
새날이 동터오듯이



■ 후기 모름지기 시는 민중의 언어로 민중의 삶을 노래하며 세상을 바꾸는 무기가 되어야

겨울을 버텨내고 봄을 맞았다. 내겐 시를 쓰는 일이 삶에 적잖은 힘이다. 다양한 매체들이 존재하지만 문학이 지닌 매력이 적어도 시인에겐 남다르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해 이웃, 친구, 독자 등을 만나고 있다. 카페 중심의 동인활동도 좋겠다. 인터넷시대엔 누구나 시를 쓰고 올리고 하면서 문학의 저변층이 넓어졌다. 물론 시적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문학애호가층의 역할 또한 크다. 개인과 사회의 시적 감수성을 서정적 자아로 표현하는 작업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함께라면 좋겠네〉 블로그 시집은 4번째로서 겨울~ 봄 최근작들이다. 개인의 일상사에서부터 지역과 전국을 아우르며 노동자 서민의 삶과 투쟁을 형상화해 본 것들이다.

주로 웹상에 올린 시편들이라 오프라인상 발표작이 드물다. 따로 종이책 시집을 출간하면 모르되 당분간 블로그북 전자책을 선호하기로 하였다. 아무려면 어떠랴 싶기도 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가 점점 내면 깊숙히 파고 들을 느낀다.

내가 추구하는 문학적 지향은 자신을 돌아보며 민중의 삶과 민족의 내일을 열어가는데 있다. 99%의 삶이 핍박받는 한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 시인도 함께 뛰는 것이다. 내가 관계를 맺고 지내는 마창지역의 노동, 시민사회, 동호회 등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다. 또 보랏빛 정당도 시로 써 노래한다. 그리고 동시대 문학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고민도 한다. 모름지기 시는 민중의 언어로 민중의 삶을 노래하며 세상을 바꾸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

어쩌면 시도 끝없는 구도의 길인지 모른다. 그동안 수종의 돈을 다 털어 밤새워 시를 쓰며 종이책 11권 시집을 펴 냈고, 블로그북 5권 시집까지 올리게 되었지만 길은 끝날 줄을 모른다. 무소유로 살고 싶건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누구든 방향기를 거쳐 올곧은 시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문학여정은 파란이 많다. 유신독재의 억압을 탈출할 비상구로 선택한 문학의 길이 MB독재와 맞닥뜨려 또 한번의 고비를 맞았다. 시가 필요한 시대이다.

2012. 3. 4 무학산 자락에서, 저자

함께라면 좋겠네

블로그 자신을 돌아보라 <http://blog.daum.net/youpoet>

저자 해당화

발행일 2012.01.05 17:04:06

 블로그